

농식품부, '농촌융복합산업지구' 사업 대상 선정 발표

윤 이은용 기자 | ㉠ 승인 2022.01.27 10:52

**정읍 지황·강진 쌀귀리·영천 마늘·창원 단감 등 '30억' 지원
'지역단위 네트워크' 사업에 청양 고추·장성 로컬푸드 뽑혀**

[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]

올해 '농촌융복합산업지구' 사업 대상으로 '전북 정읍(지황)', '전남 강진(쌀귀리)' '경북 영천(마늘)', '경남 창원(단감)'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.

여기에 '지역단위 네트워크' 사업 대상으로 '충남 청양(고추)', '전남 장성(로컬푸드)' 등 2개 지자체가 뽑혔다.



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'농촌융복합산업지구'와 '지역단위 네트워크' 사업 대상을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.

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(1차), 제조·가공업(2차), 유통 및 체험·관광업(3차) 기반을 연계해 지역 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.

농업인, 제조·가공업체, 유통·관광업체 등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·협력, 공동 인프라 구축, 기술·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·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(국비 50%, 지방비·자부담 50%)을 지원한다.

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전 단계 성격이다.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·2차·3차 산업 주체 간 연계·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 구성·운영,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에 2년간 총 3억 원(국비 50%, 지방비·자부담 50%)을 지원하게 된다.

최정미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"이번에 지구와 네트워크 사업으로 선정된 각 시·군은 해당 특화산업 육성·지원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, 기본 인프라가 우수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

이은용 기자